

주제

GT White paper: The Origin

발행일자

2018.11.26

배포버전

Preview

작성자

devin.kim@actwo.com

수단의 기능을 하는 GT

GDAC은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점과 기존 배당형 거래소 토큰²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순환 메커니즘의 유지 불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 3세대 거래소 토큰의 구조적 한계)

토큰 메커니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토큰의 발행과 회수의 균형입니다. 초기 배당형 거래소토큰이 가지고 있던 무분별한 발행과 관련된 문제는 마이닝 방식의 고도화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수(사용성)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 토큰에 부여된 배당 권리는 오늘의 토큰 100개와 내일의 토큰 100개를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게 만들어 사용을 통한 토큰의 소비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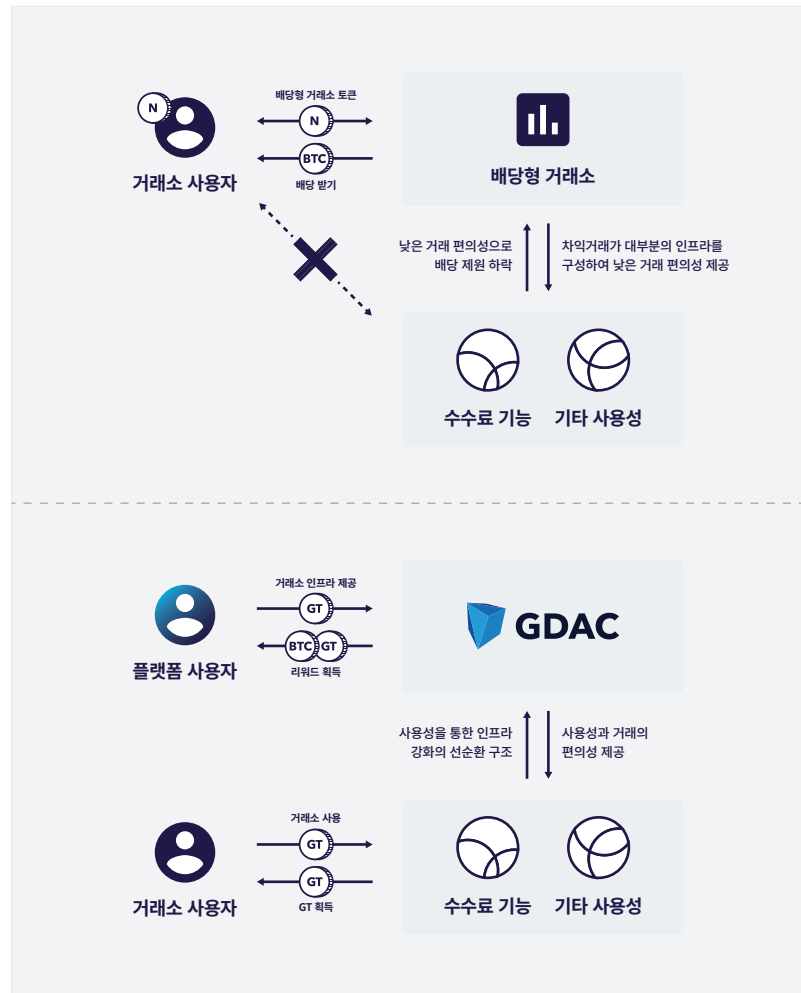


그림1. 기존 배당형 거래소 토큰(위)과 GT(아래)의 순환 구조 비교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큰 메커니즘을 달성하기 위해 GT는 경제적 인센티브(ex : 배당)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토큰의 사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차별화된 투자 대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수익 기반 인센티브
 *2 유통물량에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

GDAC은 GT의 초기 사용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리워드 라운드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GT는 리워드 라운드 내 기여도 효율화, 금융 상품에서 수수료 할인과 관련 거래의 매개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GT는 사용되어야지만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통해 GT를 사용할 수 있는 용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GT의 첫 사용성: 리워드 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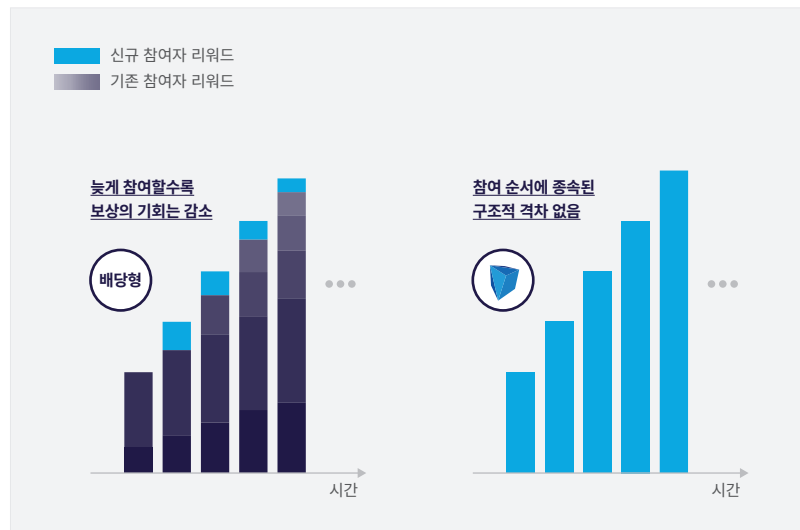


그림2. 기존 배당형 거래소 토큰(좌)과 GT(우)의 보상 구조 비교

GDAC은 기존의 배당형 거래소 토큰에서 발생하는 참여 순서에 따른 구조적 격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규모를 차등화하여 지속적인 선순환이 가능한 보상 구조인 리워드 라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워드 라운드 내에서 GT는 자격 요건에 대한 증명임과 동시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여도 효율화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라운드 미참여자 역시 사전 참여자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편의성을 통한 일반 사용자의 유치는 리워드 라운드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거래소의 인프라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장려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12월 중 리워드 라운드의 오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픈 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 수 주 내에 사용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고도화된 리워드 라운드가 공개되며, 해당 시점 전후로 GT의 원화 시장 상장과 GT 백서, 추가적인 사용성의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 토큰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GT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어지는 스케줄에 대해서는 사용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